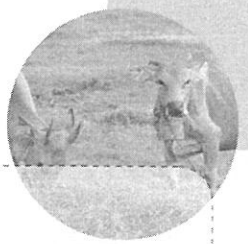


〈2013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전망〉



양계 사료산업 전망



강 상 식
중앙축산사료(주)
품질관리 이사

희망에 찬 용의해 2012년을 이제 2개월여 남겨두고 2013년의 양계 사료산업을 전망해 본다. 금년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전체 사료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나 과잉생산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하기만 한 것 같다. 농장의 경영 성적이 건전해야 이를 바탕으로 한 사료산업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모든 것이 불안한 현실이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현재의 축산 및 사료산업의 현실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생산비 이하의 축산물 가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등 축산경기 사이클 주기가 큰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한편으로 배합사료 생산업체간 인수 및 합병과 인티그레이션 강화에 의한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배합사료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또한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에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브라질 등의 대두 생산량과 러시아 등 밀 생산량 감소도 국제 곡물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옥수수,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1년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2.6%라고 하였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만약의 경우 세계곡물의 절대량이 부족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표1>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 동향

(단위 : 만마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36	56	69	65	50	40	58	83	71	61	46	34
2011년	21	43	72	73	68	46	55	73	78	64	51	33
2012년	36	67	87	76	59	39	47	56				
평년	34	53	65	57	47	40	57	68	63	56	41	30

자료:대한양계협회

<표2>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동향

(단위:천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22	21	21	24	24	21	20	19	21	20	20	23
2010년	23	23	24	26	24	22	22	21	22	23	23	22
2011년	22	22	27	26	24	22	21	22	23	23	22	23
2012년	21	22	24	24	23	21	19	21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최대 우선과제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1. 육계 사육 및 사료 생산량 전망

올해는 가뭄, 폭염과 몇 차례의 태풍 등으로 어느해 보다 농산물을 비롯한 농장의 피해가 큰 한해로 기억된다. 또한 세계경제 불황과 더불어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외식 수요가 줄면서 육계시세는 원가선에서 등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표1>의 대한양계협회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동향을 보면 2012년 8월 육용종계 입식마리수는 전년동월 대비 23.07% 감소한 56만 마리였으나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증가한 육용종계 입식 마리수의 영향으로 내년 3월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의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육용종

계 배합사료 생산동향에 따르면 8월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21,045톤 이었으나 신계군 증가, 종계 생산성 개선 등으로 종계 사육마리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향후 세계 경기불황 지속 및 국내 경기침체에 의한 사육마리수의 감소와 자체적인 종계감축 등으로 3월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육계시세가 어느정도 회복기의 사이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료생산량 역시 전년대비 3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2. 신란계 사육 및 사료 생산량 전망

금년에는 연초부터 장시간에 걸쳐 난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 수요증가에 따라 계란값이 다소 회복되었다. 이는 연이어 발생된 태풍으로 인한 과채류 가격 인상



〈표3〉 산란계 사육마리수 전망

(단위 : 만마리)

구 분	6월	9월	12월	9월/6월	12월/9월
2012년(A)	6,438	6,627	6,785	2.9%	2.4%
2011년(B)	6,072	6,121	6,243	0.8%	2.0%
증감율(A/B)	6.0%	8.3%	8.7%		

자료: 통계청 (2012년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및 전망치)

에 따른 대체재로서의 계란소비량 증가 및 추석명절 특수와 함께 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계란 수요감소와 함께 난가가 몇차례 인하를 거듭하고 있고 또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의한 생산원가의 증가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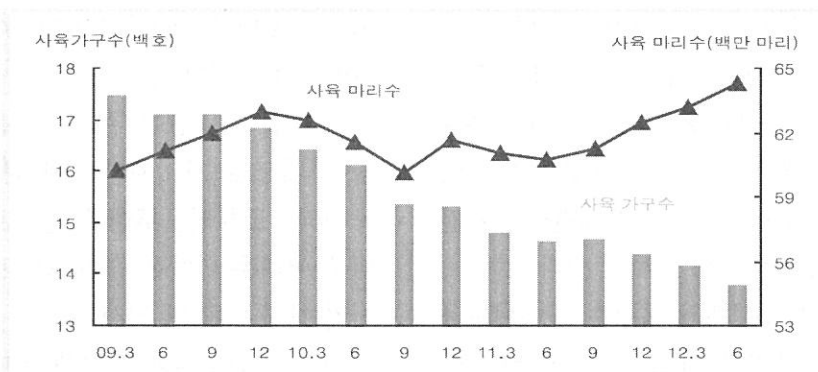
〈표3〉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증가세가 지속되어 9월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6,627만 마리, 12월 6,785만 마리로 전년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몇년동안 산란계 사육농가수는 많이 감소한 반면 전체 사육마리수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자료의 산란병아리용 배합사료 생산동향을 보면 금년 5월까지 병아리 입식 마리수가 증가하여 같은 기간 병아리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35.2%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9~11월 계란생산에 가담할 신계군이 증가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상황을 볼때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계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종계사육과 병아리 분양 감축 및 적극적인 노계도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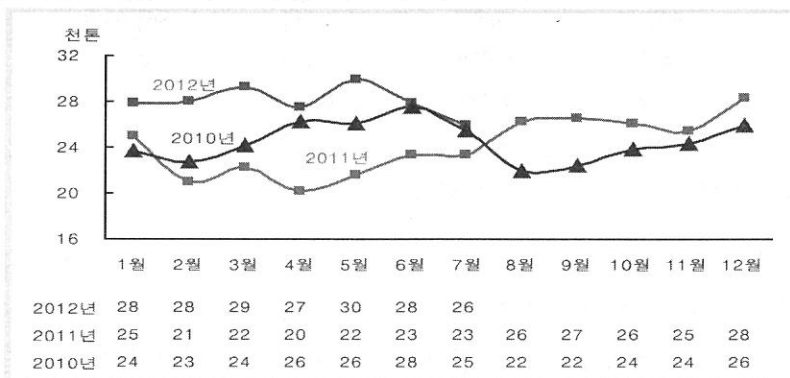
산란계 사료생산량 측면에서 볼때는 내

〈그림1〉 산란계 사육마리수 및 사육가구수 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그림>> 산란병아리용 배합사료 생산동향



자료:농림수산식품부

년 상반기까지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난가의 불안정으로 산란사료 가격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사료 원료가격 동향

최악의 가뭄으로 사료용곡물 가격 급등세가 수확기를 맞아 추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년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옥수수 선물가격은 한때 사상 최고치인 톤당 C&F 400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고점 인식에 따른 펀드들의 차익실현과 에탄올 연료 수요의 둔화 및 수확량 또한 시장예상보다 증가, 파종을 앞둔 남미산 옥수수 재배면적 증가전망 등으로 조정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료업체의 옥수수 구매현황을 보면 2013년 1월 도착으로 C&F 톤당 약 340달러, 2월에는 약 300~305달러에 이미

구매를 완료한 상태로 예년대비 약 10~20% 상승된 가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확기가 끝난뒤 잠시 주춤했던 곡물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두박의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중 C&F 톤당 약 400달러 내외에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연초부터 남미의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 등으로 11월 도착분 기준으로 남미산 대두박이 510달러 이상까지 상승하였다. 게다가 지난 여름 미국의 최악의 가뭄으로 최근 원료 구매단체에서 2013년 1월 도착기준으로 남미산 대두박을 650달러 가까이에 구매를 한 상태로 예년대비 40~50% 상승된 가격이다.

이와 같이 내년이 무척 어려운 한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악몽 같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한해를 슬기롭게 보낸 것을 돌이켜 보면 2013년 역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전망해 본다. ☞